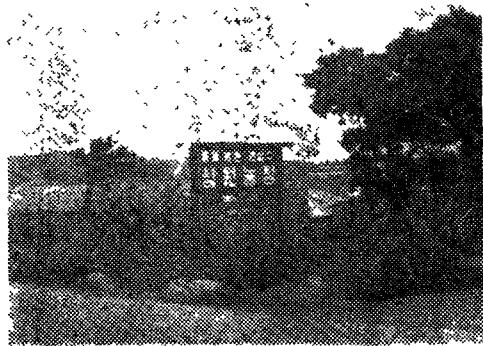


◆ 탈방 씨리즈(3) ◆



상원농장을 찾아서!

정
돈
철

△대한양계협회
지도조사부▽

강화도나 김포행 버스를 타고 달리다 보면 도로변 좌측에 “상원농장”이라고 써여진 큰 간판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간판 앞에 서서 다시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조그마한 야산에 스웨이트 지붕의 큼직큼직한 계사와 돈사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농장이 한 눈에 들어온다. 여기가 바로 상원농장으로 정확한 소재지는 김포군 고촌면 태리이다.

벽에 여러가지 도표가 붙어있는 널찍한 사무실에 들어서니 훤칠한 키와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농장주인인 한춘섭氏가 반가이 맞아준다. 조금 대머리인 한춘섭氏는 첫인상이 무척 서민적이고 텁텁하여 처음 대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데 조금도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아 우선 부담감이 없어 좋았다.

관상수에 쓸 거름이 없어 양계를 시작

원래 한춘섭氏는 모전설회사에서 경리분야를 담당했었는데, 현재의 농장부지를 구입할 당시(73년도)만해도 관상수를 심을 계획이었지 양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실 문외한이었다. 그러나 막상 관상수를 심고 나니 막대하게 필요되는 거름을 확보할 길이 없어 관상수에 거름을 공급할 목적으로 양계를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산란계 2,000수를 가지고 시작했는 데 계사 건축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한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건축기사에게 계사 설계를 부탁하였더니 어떻게나 계사를 견고하게 지었던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다고 하는데 한춘섭氏가 그만큼 양계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관상수용 거름을 위해 시작했던 양계가 이제는 주업(主業)이 되어, 해마다 계사를 짓고 턱을 늘여 지난 5년동안에 확고한 기반을 닦게되었다. [표 1]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약 28,000수의 산란계와 돼지가 250두가량 있으며 앞으로 턱은 현수준으로 유지하고 돼지는 1,000두까지 증식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표 1] 농장현황

농장면적	10,000평	속수필 사무실	3동
인원	20명	성계수수	18,000수
제사	13동 ; 910평	육추계 "	10,000수
돈사	6동 ; 420 "	돼지	250두
사료 배합공장	120평 생산능력 : 3-4t /일(보통) 10t/일 (최대)	기타	관상수 차량 1대

철저한 계수관리로 명확한 경영분석

한춘섭씨의 경영방침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역시 경영학을 전공한 분 다음과 같이 철저한 계수 관리에 있었다.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각종 도표와 통계표라든가, 필자가 사무실에 들어 갔을 때, 여러 장부와 양식용지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만 보아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상월농장에서는 일반 기업체처럼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만들어 월별, 년차별로 철저하게 경영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 같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6월 말까지의 손익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총매상고의 약 15%가 순이익이었다고 하며, 74년도에 순이익은 총매상고의 10%였고 가장 블횡이었던 73년도에는 순이익이 8%였던 사실은 합리적인 경영분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춘섭氏는 작년에 많은 양계인들이 도산을 했는데, 그 이유로써 첫째 양계인들이 자금계획을 적절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60년 대식의 양계경영 방식에서 탈피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상월농장의 철저한 계수관리의 한예로써 산란일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현재 산란 중인 산란계군이 6개군인 데 각군마다 [표 2]와 같은 산란일계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그 계군 담당관리인이 일일 생산량을 양식에 기록하여 계란 입고시 실제생산량과 대조한 후 각 계군의 생산량을 다시 [표 3]과 같은 산란일계표에 기록하여 집계를 하며 이것을 다시 주별, 월별, 년차별로 통계를 내어 손

[표 2] 산란 일계표(양식)

계군		생존일령 :		197 년 월 일			
산 군 수	왕특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합계			
성 계 수	전 일 성계 수	금 일 도태 수	금 일 성계 수				
사 료 소 비	사료종류	전불잔고	금일 입고	금일 소비	금일 잔고	수당 소비량	
비 고							
저 시 사 항							

관리자명 :

상월농장

익계산의 자료로 삼는 것이다. [표 3]의 양식에 기록된 수치는 이해를 돋기 위해 상월농장의 1975. 7. 13의 실적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다

필자가 순수익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더니 한춘섭氏는 손익관계는 농장의 기밀이므로 꼬란하다고 하며, 대신 수당 수익성을 즉석에서 계산해냈다. 그러나 수당 수익성이란 난가, 털의 종류, 농장의 규모 등등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의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당 수익성을 산출해 주었다.

산란율 : 70%

난가 : 23⁷⁵(특란과 대란의 평균치)

일일 사료섭취량 : 120g.

일일사료비 : $120g \times 85원 = 10^{20}$ 원(사료 단가는 자가배합시의 가격)

수당경상비 : $50,000원 - 18,000수 = 2^{77}$ 원

계

12⁹⁷원

[표 3]

산란일계표(양식)

상원농장

75년 7월 13일의 예(例)

구분	등급	왕특란	특 란	대 란	중 란	소 란	경 란	파 란	합 계	생존일령	산란율
전 일 잔 량		—	285	34	42	59	—	190	610		
금 일 산 란	1호 계군	—	894	656	158	—	—	94	1802	430	66
	2호 계군	—	808	1120	316	—	—	78	2332	313	81
	3호 계군	—	100	1150	2444	—	—	55	3759	213	88.8
	4호 계군	—	—	—	—	—	—	—	—	—	—
	5호 계군	—	340	177	—	—	—	31	548	564	50.5
	6호 계군	—	295	190	—	—	—	46	531	645	52
	7호 계군	—	768	639	84	—	—	114	1605	529	59.7
	8호 계군	—	—	—	—	—	—	—	—	—	—
	합 계	—	3205	3932	3002	—	—	418	10557	—	72
금 일 출 하		—	2100	2310	—	—	—	350	4760	—	—
금 일 재 고		—	1390	1656	3044	59	—	258	6407	—	—
산이 란사 제항	계군 No.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합 계	
	전 일 수	2730	2864	4230	—	1085	1018	2688	—	14615	
	금일처분	1	1	1	—	1	—	1	—	5	
	금 일 잔	2729	2863	4229	—	1084	1018	2687	—	14610	
사 료 사 항	계군 No.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합 계	
	전 일 잔	20	10	13	—	2.5	3	14	—	—	
	금일입고	13	14	10	—	4	6	5	—	—	
	금일소모	11	12	16	—	4.5	4	11	—	—	
	금 일 잔	22	12	7	—	2	5	8	—	—	
	수당섭취량	1209	125.7	113.5	—	124.5	117.8	122.8	—	—	
계 란 출 하 사 항	거 대 선	왕특란	특 란	대 란	중 란	소 란	경 란	파 란	합 계		
	上	—	—	210	—	—	—	—	210		
	농장소비	—	—	—	—	—	—	350	350		
	A 상 인	—	2,100	2100	—	—	—	—	—	4,200	
	합 계	—	2,100	2,310	—	—	—	350	4,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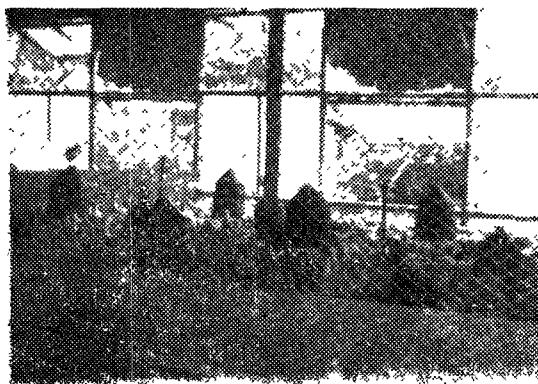
사료자가 배합으로 생산원가 절하

$$\text{일일계란판매액} : 70\% \times 23^{75} = 16^{62} \text{ 원}$$

차 액 3^{65} 원

즉 1일 수당 수익이 3^{65}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가치가 없으므로 차라리 총매상고의 몇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상원농장에는 소규모의 사료배합공장이 있다. 이 공장은 7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생산능력은 최대로 가동하면 일일 10t 정도의 사료를 배합할 수 있고 여기서는 평균 3~4t 정도 생산한다. 사료공장을 세워 자가 배합을 한 이유는 73년도 말에 사료파동으로 시중사료의 품질저하로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생



<육축계사 내부 일부>

겨울에 안정된 품질의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그런데 자가배합의 경우 농장

의 특성에 맞게끔 사료 배합을 할 수 있으며
보통 시중사료보다 약 10% 정도 사료비를 절
감할 수 있다. 이자가 사료배합에 의한 사료비
절감이 상원농장의 높은 춘수익을 올리는 큰 요
소인 것이다. 그러나 자가배합은 다량의 단미
사료를 구입해야 하므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양계장에서는 어려
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배합례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한준섭氏는 단백
질 함량을 평균 17% 수준으로 하고 기타 필요
시에 첨가제, 비타민, 항생제 등을 배합한다고
만 말하였고 그 이상의 세세한 설명은 회피하
면서 [표 4]와 같은 양식으로 배합을 한다고
단부치면서 양식을 보여준다.

[표 4]

사료 생산 일지(양식)

생산일자 :
생산자 :

분류	단미사료	배합율	일회배합량 (kg)	배합회수	총 배합량	단 가	금액	비고
곡류	기초사료							
	과빵·과류							
	옥수수							
류류								
강화류	소麦파							
	탈지강							
	麦강							
	베토나이트							
류류								
어박류	어							
	대두박							
	채종박							
	고추씨박							
	호마박							
	임박							
	옥태박							
	우모분							
무기물	인산칼슘제							
	페분							
	콜분							
첨가제	메치오닌							
	라이신							
	비타민							
	후라조리돈							
	D.O.T.							
	T.M							
제제	유지화							
	피리메타민							
월가제산	습화							
	감온					%		
	가공비							
	운임							
	총계							

자체 내에서 만든 배합례는 사료공장, 기타 전문가들로 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실제 농장에 맞는 배합례인가를 수시로 점검하며, 생산된 사료를 분석 의뢰하여 사료 품질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업원들의 농장에 대한 신뢰감 사기양양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상원농장에서 경영특징을 설명함에 있어 우선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앞서 말한 철저한 계수관리이고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멀리서 본 상원농장의 전경>

한춘섭氏는 말하기를 농장에서 관리인의 이동이 심하다는 사실은 관리인들이 농장에 대해 불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리인 채용시 매우 신중하게 채용을 하며 일단 농장에서 일하게 되면 신뢰감과 사기를 양양시켜 주어야 한다. 상원농장에 있는 모든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적금을 들어야 하며 적금이 만기가 되면 농장에서 보관하면서 이자를 지급한다. 생활보장과 장래를 가능한 밝게 해주는 것이 한춘섭氏가 관리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1년에 1개월 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즉 관리인이 상원농장을 떠날 때 무언가 남는 것이 있어야 하고 본인도 좀 더 나은 장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어린 관리인들에게 양계등에 관한 책을 읽기를 거의 강요하시피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계사에서 일하는 관

리인들이 읽을 수 있는 쉽고 알기쉬운 양계자 가 있으면 좋겠다고 필자에게 이야기 한다.

솔직하게 양계경영을—자기 본위의 판단은 금물

한춘섭氏가 필자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양계인은 솔직하게 양계를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자기본위적인 판단이나 진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였었는 데, 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였다.

상원농장에서 질병에 인한 피해가 가장 커었던 73년도의 일이었다. 대추를 약 2만수 가량 육성을 하였는데 갑자기 병아리에 이상이 생겨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물었다. 모약 품회사의 세일즈맨이 비타민 부족이라 하여 황급히 비타민제를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호흡기병이라고 진단하여 급히 약을 투여했으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면밀한 검사결과 콕시듐으로 판명되어 뒤늦게나마 콕시듐접종을 하여 차차 회복이 되었는데 이 당시 약24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한다. 자기본위적인 진단 또는 속단의 한예였던 것이다. 아무튼 이때를 계기로 질병예방을 철저히하여 그 이후 질병에 의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자기 농장의 결점과 단점을 서로 알려 고쳐 나갔으면

상원농장의 경우 년중 산란율이 70~73% 정도라고 한다. 반면 다른 농장들의 산란율이 훨씬 높게 발표되고 있는 데 그것이 사실 그대로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며, 우리나라 양계인들이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통계를 발표해 주기 바라며 자기 농장의 결점 또는 단점을 대외적으로 알리어 고쳐나가는 방향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월간지에 게재할 때 상원농장의 결점이나 단점을 꼬집어 달라고 필자에게 당부를 한다. 또하나의 큰 문제점은 집란시 파란이 너무 많아 끌치를 얇고 있다는 데 파란율이 3~4%로서 다른 농장

에도 이만큼 파란이 많은지 알아 봐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필자가 여기저기 알아 보았더니 3~4%의 산란율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기록으로 원인분석 후 대책수립

한춘섭氏는 산란율이 저조한 이유를 관리상의 차질에서 생겼다면서 그 일예를 소개해 준다. [표 5]는 A군, B군, C군의 각 계군들이 산란에 있어 혼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표 5] 산란율 비교

생존일령 : 43주령

계군	생존율	해하우스 산란율	헬메이	산란지수
A	91.36%	57.62%	63.07	92
B	93.71	77.74	82.96	116
C	89.64	74.76	83.45	96

즉 [표 5]의 산란율비교는 계군이 A군, B군, C군으로써 생존일령 43주령시 A군이 가장 산란율이 낮고, 그 다음이 C군이며, B군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산란율이 높은 B군도 일반닭보다 산란율이 떨어진 것으로 그 원인은 혹한기에 초산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한춘섭氏는 설명했다. 그래서 상원농장에서는 혹한기에 초산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여 육추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저조한 A군의 경우 그 원인은 첫째 초생 추구입시 병아리를 너무 늦게 수송하였기 때문에 초기사료급여가 늦어졌다는 것과 닭의 계통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두번째 요인이었다 한다. C군은 구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어 산란율 저하요인으로 구충 미실

시에 의한 것으로 한춘섭氏는 추측을 하였다.

경영의 묘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필요

마지막으로 한춘섭氏의 안내로 사료공장, 계사, 돈사를 들러보면서 지금까지 전혀 부담감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음에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워지며 상원농장에서 하고 있는 철저한 계수 관리와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우리나라 어느 농장, 또는 양계장이나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철저한 일지를 기록함으로서 자기 농장의 경영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에게 철저한 기장을 하도록 훈련시켜야겠고 또 그려한 방향의 농장경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확한 기록을 함으로서 내일이 경영지침을 세워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철저한 경영기록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또 단미사료를 직접 구입하여 자가배합을 함으로서 배합사료를 구입해 쓰는 것보다 kg당 10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영의 묘” 아무리 제반 원가상승으로 우리의 양계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나 우리는 최선의 경영의 묘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한춘섭씨를 통해 알 수 있을것 같다. 사료비의 인상등 제반 원가압박은 우리 양계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의 압박을 견디어 가며 불황속에서도 불황을 모르며 자기의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이것은 한춘섭씨와 같이 경영의 묘를 살려 부단히 노력하는 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 양계 경영의 철경은 일지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매일 매일 빠짐없이 일지를 기록함으로서 자기 사업의 결점을 발견해서 더 넓은 경영 계획을 세울수 있을 것입니다.

● 수익을 높일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일지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